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2020지역언론 토크아보기\_9월2주(2)>

## 정치 권력 감시 등한시하면서 긍정 행보 부각한 지역 언론

- 국회의원 재산 증가 유일하게 보도한 부산MBC

지난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의 당선 전후 전체재산 및 부동산재산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경실련은 총선 입후보 당시 선관위에 신고한 전체재산·부동산재산의 평균과 당선 이후 평균을 비교했을 때, 전체재산은 10억 원, 부동산재산은 9천만 원 정도가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선 전후 전체재산의 신고 차액이 10억 이상 차이 나는 의원 15명의 명단도 공개했는데요, 이 중 1위는 수영구를 지역구로 둔 전봉민 의원(866억)이었습니다. 전봉민 의원 외에도 이주환, 백종현, 서병수 의원도 포함되어있어 부산 의원 4명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표2> 국회의원 당선전후 재산신고액이 10억 이상 차이 나는 국회의원

(단위: 백만원)

이름	후보당시		당선이후		전체재산 차액	부동산재 산 차액
	전체재산	부동산재산	전체재산	부동산재산		
전봉민	4,814	983	91,414	1,222	86,599	239
한무경	16,358	10,354	45,208	10,509	28,850	154
이상직	4,025	2,576	21,267	2,998	17,241	422
이주환	3,107	3,205	11,736	3,758	8,628	553
백종현	19,837	17,018	28,207	17,455	8,369	437
문진석	2,816	1,638	6,517	1,640	3,700	2
조명희	3,335	2,623	5,703	1,704	2,368	(919)
윤주경	3,660	2,602	5,673	2,709	2,013	106
강기훈	9,677	5,207	11,545	5,086	1,867	(120)
양경숙	9,201	5,892	10,918	6,225	1,716	332
서병수	4,680	1,353	6,110	2,965	1,430	1,612
이광재	1,006	1,525	2,260	2,163	1,254	638
홍성국	3,636	662	4,857	1,535	1,220	873
조태용	2,148	1,838	3,310	1,921	1,161	82
조수진	1,850	2,320	3,001	2,320	1,151	0
15명 (계)	90,157	59,801	257,732	64,216	167,574	4,411
15명 (평균)	6,010	3,986	17,182	4,281	11,172	294

주1) 부동산재산은 보유기준으로 임차권은 제외

### ▲ 경실련, <선관위 등록, 몇 달 후 국회 신고재산 1,700억 늘어>

이 소식을 보도한 지역 언론은 부산MBC가 유일했습니다. 부산MBC는 14일 첫 소식으

로 <총선 전·후 재산 '10억 이상 증가'…“부산4명”>(이만홍 기자) 을 보도했습니다. 해당 리포팅은 당선 전후로 재산 신고액 차이가 가장 큰 의원 15명 중 4명이 부산 국회의원이었다며, 전봉민, 이주환, 백종현, 서병수 의원을 언급했습니다.

4명의 의원에 한해, 총선 당시 재산 신고 과정에서 고의로 누락된 정황은 없는지를 짚었습니다. 이어서 유권자에게 정확한 후보자 정보를 제공한다는 재산 공개의 취지를 훼손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부산MBC <뉴스데스크>, 9월14일

지역 정치권에 대한 감시는 지역 언론의 주요 역할입니다. 부산시장 후보로 지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서병수 의원을 비롯한 지역 의원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심층취재는 고사하고 의혹조차 보도하지 않은 것은 지역 언론이 제 역할을 다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9월 14일부터 18일, 5일간 지역 언론에서 전봉민, 이주환, 백종헌, 서병수 의원  
에 대한 다른 기사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전봉민	국제신문 9월17일 5면 <“업종 차별 안 돼” 부산 의원들 2차 지원금 소외계층 챙기기>
이주환	KBS부산 뉴스9 9월14일 단신 <민주당 “이주환 의원 허위 재산신고” 조사 촉구>
백종헌	보도 없음
서병수	국제신문 9월15일 13면 [창간73주년기획] 금융중심지 부산의 기회와 도전 <3> 지역 여야 정치권의 구상
	국제신문 9월16일 5면 <보선판 김영춘·서병수 거취에 쏠린 눈>
	국제신문 9월17일 5면 <서병수 “시장 꿈 있다” 출마 검토 시사하자 야당 후보 군 “결국 못 나올 것” 애써 의미 축소>
	부산일보 9월17일 3면 <서병수 “시장의 꿈 있다” 출마 시사...결행까지는 곳곳 암초>
	KNN 9월17일 4번째 <부산시장 보궐선거, 요동치는 판세>

표 1 9/14~9/18, 부산지역언론 전봉민, 이주환, 백종헌, 서병수 의원 관련 보도

전봉민 의원은 소외계층을 챙겼다는 긍정적인 기사가 1건 실렸습니다. 국제신문 <“업  
종 차별 안 돼” 부산 의원들 2차 지원금 소외계층 챙기기>인데요, 전봉민 의원 보도자  
료를 기사화한 것으로 김영란법상 식사 가액 상한을 상향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백종헌 의원 관련 기사는 없었습니다. 이주환 의원 관련 기사는 단신 보도 1건으로, 이  
주환 의원 재산 신고 누락과 관련해 선관위가 조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기자회견 소식이었습니다.

서병수 의원은 16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내년 시장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시사해, 이  
와 관련한 기사가 4건, 금융중심지 구상 관련 기사가 1건 있었습니다. 재산 축소 신고  
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